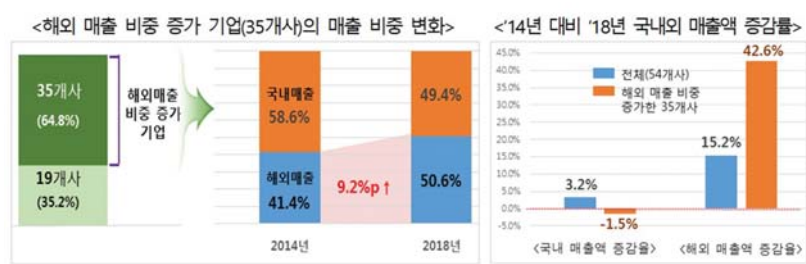


“韓 10대 기업, 작년 매출 2/3 해외서”



한경연, 100대 기업 중 64개사 분석 해외비중 9.2%p ↑...애플 43.7% 최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해외 매출액이 국내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 중 국내의 분류가 가능한 64개사를 분석한 결과,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55.1%)이었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은 “주요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5년 전에 비해서도 증가했고, 특히 상위 10대 기업, 5대 기업으로 갈수록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10대 기업, 지난해 매출 65.9% 해외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5대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72.9%로 더 높았다. 삼성전자(86.1%), 기아자동차(66.9%), LG전자(63.5%), 현대자동차(62.0%)의 해외 비중은 모두 60%를 넘어섰다. SK하이닉스는 97.9%로 10대 기업 중 해외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유일한 기업이

었다.

◇기업 10개 중 6개는 5년 전보다 해외 매출 비중 9.2%p 증가했다.

주요 기업 10개 중 6개사는 5년 전에 비해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했다.

전체 64개사 중 2014년과 비교 가능한 54개사를 분석한 결과 35개사(64.8%)의 해외 비중이 2014년(41.4%)에 비해 9.2%p 늘어난 50.6%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액 증감을 보면 전체 54개사는 국내 매출액이 3.2%, 해외 매출액이 15.2%가 증가한 반면,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한 35개사는 국내 매출액이 1.5% 감소하고 해외 매출액은 42.0%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매출액 상위 5대 기업 중 삼성전자는 5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80%대의 해외 매출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각각 6.7%p, 4.5%p 늘어 6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대 기업 해외 매출 비중 변화(2014년→2018년)를 보면 삼성전자(89.9%→86.1%, -3.8%p), 현대자동차(55.3%→62.0%, +6.7%p), LG전자(71.3%→63.5%, -7.8%p), SK이노베이션(52.3%→50.1%, -2.2%p), 기아자동차(62.4%→66.9%, +4.5%p)으로 조사됐다.

◇전기·전자 업종 및 아시아에서 해외 매출 비중 커

업종 및 국가별로는 전기·전자(82.6%)와 아시아(43.7%)에서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업종에 속한 7개 기업 중 SK하이닉스(97.9%), LG디스플레이(93.5%), 삼성전기(89.0%), 삼성전자(86.1%), 삼성SDI(81.5%) 등 5개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80%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의 해외 매출 비중이 43.7%로 가장 크고 그 밖에 미주(31.5%), 유럽(18.7%)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 법인세 18.9조원, 작년 일자리 예산 19.2조원 수준

분석대상 64개 기업 중 지난해 법인세차감전이익이 적어진 기업 등을 제외한 52개사의 지난해 법인세비용은 22조9000억원으로 전

체 법인세수 70조9000억원의 32.3%를 차지했다.

기업별로는 지난해 국내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 13.9%, SK하이닉스 2.1%였다. 하지만 법인세 부담액은 각각 11조8000억원, 5조8000억원으로 두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70조9000억원)의 1/4 가량(24.3%)을 차지했다.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전체 법인세비용은 18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현재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9월부터 만7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 확대) 예산 2조2000억원의 8.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2/3수준에 육박하고, 5년 전에 비해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세수나 고용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 마련 등을 통한 경영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뉴스스



삼성전자가 여름철 상수기를 대비해 에어컨 생산라인을 3월부터 풀가동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6번도에 위치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무풍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다.

“연휴 지나면 초여름” 에어컨 전쟁 벌써부터 ‘후끈’

제조사들, ‘사계절 가전’ 에어컨 신제품 출시 및 생산라인 풀가동

5월 황금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초여름 날씨가 시작돼, 올해도 ‘에어컨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존 ‘무풍에어컨’ 갤러리의 장점인 ‘썬클리어 급속 냉방’, ‘와이드 무풍 냉방’ 등은 유지했다. 신규 라인업은 56.9㎡·62.6㎡의 냉방 면적과 캔버스 브라운·캔버스 그레이 2가지 색상이며, 하단 패널 색상 선택에 따라 총 14개 모델로 운영된다.

앞서 대우위니아도 지난 1월 신제품 ‘2019년형 위니아 에어컨’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극세사 필터, 탈취필터, 초미세먼지까지 잡아주는 전자제어해파필터(EPD)와 이온이저 4단계 정정시스템 등으로 한국공기청정협회의 공식 인증(CAC 인증)을 취득했다.

대우위니아에 따르면 1분기 위니아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특히 스탠드형 에어컨 판매분 중 공기청정 기능을 탑재한 모델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2월의 경우 해당 모델의 판매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 대우루컴즈의 가전 브랜드 루컴즈도 2019년형 루컴즈 이동식 에어컨 2종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냉난방 겸용과 냉방 겸용 제품 각 1종씩 출시됐다. 한편, 에어컨은 여름철 구매 수요가 폭증하므로 설치 및 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여유 있게 구매해야 유리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상수기에는 설치·수리 서비스가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상수기 전에 사전점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LG전자, V50 씽큐 출시 확정...5G폰 본격 ‘격돌’

LG전자가 5G 스마트폰 V50 씽큐의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7일부터 V50 씽큐 예약판매를 시작하며, 10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당초 LG전자는 지난달 19일 V50 씽큐

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5G 스마트폰 시장에는 지난달 5일 출시한 갤럭시S10 5G만이 유일한 5G 지원 단말기로 자리하고 있었다. V50 씽큐의 장점은 ‘듀얼스크린’

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듀얼 스크린은 여담을 수 있는 플립(Flip) 커버 안쪽에 6.2인치 올레드 화면이 있다. ‘체킨드 스크린’을 화면 바깥으로 끌어내 멀티태스킹 성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탈착식이라 필요할 때만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V50 씽큐의 출고가는 119만9000원으로 갤럭시S10 5G보다 저렴한 편이다. 갤럭시S10 5G의 초기 출고가는 256GB 모델 139만7000원, 512GB 모델 155만6000원이다.

삼성전자는 V50 씽큐 출시에 앞서 갤럭시S10 5G의 출고가를 낮추는 등 준비에 나섰다. SK텔레콤과 KT는 삼성전자와 협의해 지난 1일



512GB 모델 출고가를 9만9000원 내린 145만7500원으로 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5G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3일 갤럭시S10 시리즈의 국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갤럭시S10 5G 판매량의 23%라고 설명했다. 갤럭시S10 5G가 뒤늦게 출시된 것을 감안하면 초기 흥행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V50 씽큐, 오늘 예약판매...10일 공식 출시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와 본격 맞대결 예상

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5G 품질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종 출시 시점을 조율해왔다.

LG전자가 출시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와 치

러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5G 스마트폰 대비 저렴한 가격이 꼽힌다. LG전자는 5G 서비스에 최적화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시적으로 21만9000원 상당의 ‘듀얼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